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 5. 11
- 제공자 : 농림부 식량정책과
- 과 장 : 김 현 수
- 서기관 : 김 인 중
- 전 화 : 500-1755

이 자료는 2004년 5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
추곡 약정매입가격 정부(안) 4% 인하키로

□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산 추(하)곡 약정매입가격을 2003년산 대비 4% 인하하는 정부(안)을 결정하였다.

- 정부가 정한 2004년산 추곡 약정매입가격은 80kg 1등급쌀 기준 161,010원이며, 매입량은 WTO협정에 의한 쌀 보조금(AMS) 1조 3,598억원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744천톤(516만석)이다.

* 2003년산 추곡 약정매입가격 : 167,720원(80kg쌀), 매입물량 : 5,209천석

- 농가의 영농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중순부터 정부(안)을 중심으로 농가와 매입약정을 잠정 체결할 계획이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봄철 농가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가격의 60%가 선금으로 지급된다.
-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국회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다음달 초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 정부가 약정매입가격을 4% 인하한 것은 쌀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DDA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로부터 농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결정한 것이다

○ 쌀협상과 DDA 협상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장개방 폭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쌀협상에서의 입지강화와 우리 쌀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4배 수준인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 이번 쌀협상에서 관세화가 유예되더라도 수출국에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중에도 관세는 감축(shadow reduction)되는 것이므로 장래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u>1996</u>	<u>1999</u>	<u>2001</u>	<u>2002</u>	<u>2003</u>
MMA 수입가(A)	31,627원/80kg	35,300	31,328	32,351	44,150
산지쌀값(B)	136,815원/80kg	155,407	150,518	159,644	161,915
가격차 (B/A)	4.3배	4.4배	4.8배	4.9배	3.7배

* 95년 WTO출범이후 추곡수매가를 일본은 12.8%인하하였고, 대만은 동결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26.4% 인상

○ 쌀의 수급상황을 보면 '03년 재고는 763만석, '04년 678만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이러한 공급과잉기조는 WTO 쌀협상과 DDA협상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1995</u>	<u>1996</u>	<u>2000</u>	<u>2002</u>	<u>2003</u>	<u>2004</u>
재배면적	1,056천ha	1,050	1,072	1,053	1,016	-
생산량	3,513만석	3,696	3,674	3,422	3,091	-
인당소량	106.5kg	104.9	93.6	87.0	83.2	81.8
재고량	458만석	169	679	1,005	763	678

-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 조정제와 논에 타작물재배, 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하고 추곡 약정매입 가격과 시장가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수급상황에 맞는 가격이 형성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균형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쌀산업의 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추곡 약정매입가격을 4%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정부에서는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곡 약정매입가격은 인하하되, 쌀협상과 추곡 약정매입가격의 인하에 따른 영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관련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추진해 나가는 한편

○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촉진해 나가고 미곡 종합처리장 경영혁신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자 료

□ 2004년산 추곡약정 매입가격 (정부안)

	특등품	1등품	2등품	3 등품	잠정등외품
벼	59,940	58,020	55,450	49,350	39,890
40kg기준	(62,440)	(60,440)	(57,760)	(51,410)	(41,550)
쌀로 환산	166,500	161,010	153,750	136,840	110,690
80kg기준	(173,440)	(167,720)	(160,160)	(142,540)	(115,300)

* ()는 2003년산 가격임

□ 2004년산 하곡약정 매입가격 (정부안)

	1등품	2등품	등외품
겉보리 40kg 조곡 기준	30,230원 (31,490)	28,590 (29,780)	23,670 (24,660)
쌀보리 40kg 조곡 기준	34,260원 (35,690)	32,700 (34,060)	27,730 (28,890)

* ()는 2003년산 가격임

□ 연도별 수매보조금(AMS) 현황

연 도 별	'93	'95	'96	'97	'98	'99
◦ TotalAMS	-억원	21,825	21,056	20,286	19,517	18,747
◦ 쌀 AMS	21,093억원	20,344	19,594	18,845	18,095	17,348
- 수매량 (인상율)	9,977만석 (5%)	960 (동결)	880 (4%)	850 (동결)	770 (5.5%)	697 (5%)
연 도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 고
◦ TotalAMS	17,978억원	17,208	16,439	15,669	14,900	
◦ 쌀 AMS	16,596억원	15,847	15,097	14,348	13,598	
- 수매량 (인상율)	629만석 (5.5%)	575 (4.0%)	548 (동결)	521 (동결)	516 (4%인하시)	

해설자료

이 자료는 2004년 5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 약정매입가격 정부(안) 결정 배경

2004. 5

농 립 부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2004년산 추곡 약정매입가격 정부(안), 4% 인하

정부는 2004년산 추곡 약정매입가격 4%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약정매입가격 인하(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과 DDA 협상으로 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쌀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MMA수입과 더불어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 과잉기조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 국내외 가격차 축소 시급

지난 1.20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하였고 앞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9개국과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개방 폭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쌀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가 되더라도 추가적이고 수용가능(additional and acceptable)한 시장접근물량의 양보에 따른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며, 유예기간중에도 관세는 감축(shadow reduction)되는 것이므로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관세화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충격이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관세화를 하든 관세화 유예를 하든 수입물량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은 WTO출범이후 수매가를 12.8%인하하여 왔고, 대만은 동결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96년 재고가 169만석까지 감소하면서 증산시책 추진과 IMF 경제위기에 따른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계속

인상해온 결과 국내외 가격차가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u>1996</u>	<u>1999</u>	<u>2001</u>	<u>2002</u>	<u>2003</u>
MMA 수입가(A)	31,627원/80kg	35,300	31,328	32,351	44,150
산지쌀값(B)	136,815원/80kg	155,407	150,518	159,644	161,915
가격 차 (B/A)	4.3배	4.4배	4.8배	4.9배	3.7배

* '03년에는 쌀 국제가격의 급등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쌀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수입쌀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축소가 시급하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회복해야

90년대 중반이후 연속적인 풍작과 MMA물량의 수입증가로 공급은 늘어나는데 반해 수요는 계속 감소함에 따라 '01년 재고는 927만석, '02년 1,005만석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쌀 소비축진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03년 재고는 763만석, '04년 678만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의무수입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급과잉기조는 WTO쌀협상과 DDA협상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1995</u>	<u>1996</u>	<u>2000</u>	<u>2002</u>	<u>2003</u>	<u>2004</u>
재 배 면 적	1,056천ha	1,050	1,072	1,053	1,016	-
생 산 량	3,513만석	3,696	3,674	3,422	3,091	-
1인당소량	106.5kg	104.9	93.6	87.0	83.2	81.8
재 고 량	458만석	169	679	1,005	763	678

정부는 이러한 공급과잉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생산조정제·논에 타작물재배와 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약정매입가격과 시장가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수급상황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적정생산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를 수용하여 정부(안) 결정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유통업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30일 쌀산업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약정매입가격을 4%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수급상황과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위해 약정매입가격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약정매입가격을 인하하되 약정매입가격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119조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직접지불제를 확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 양곡유통위원회 기타 건의사항 >

- * 쌀 수급 균형 유지와 정부양곡관리의 효율화
-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및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완
- * RPC 유통기능의 활성화
- * 소비자를 위한 안전·고품질 쌀 유통 확대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쌀농가의 단위당 소득이 감소하였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정매입가격을 인하하면 쌀농가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u>1995</u>	<u>1998</u>	<u>2001</u>	<u>2002</u>
도시근로가구(A)	22,933 천원	25,597	31,501	33,509
농가(B)	21,803 천원	20,494	23,901	24,475
소득격차 (B/A)	95.1 %	80.1	75.9	73.0

정부는 쌀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정매입가격을 인하하되,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쌀협상과 약정매입가격 인하의 영향 등을 포함한 농가소득의 종합적인 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선 논농업직불제는 소득감소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투입농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2002년 이후 계속가입자에 대해 농업인 납부금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개방 폭 확대 이후에는 일반 농업인의 소득보전은 물론 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납부금과 보전수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쌀 생산농가 규모화 추진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쌀값하락에 따라 단위당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UR 협상 이후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화를 추진한 결과 3ha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영세고령농의 은퇴 지연, 땅값 상승기대로 인한 농지유통화 미흡, 농기계·농지구입에 따른 수익성 저하, 쌀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규모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u>0.5ha 미만</u>	<u>0.5-2ha</u>	<u>2-3ha</u>	<u>3ha 이상</u>
<u>1993년</u>	531천농가(40.2%)	705(53.3)	57(4.3)	29(2.2)
<u>2003년</u>	415천농가(43.9%)	441(46.7)	44(4.7)	44(4.7)

따라서 정부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지급방식도 매월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유통화를 촉진하고 영농규모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며, 쌀값하락에 따른 농지의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제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업농의 쌀산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고 수익성 저하의 원인인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PC 경영혁신과 품질고급화의 추진

수매물량 감소에 따른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유통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 현재도 경영이 어려운 산지 RPC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RPC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자금 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RPC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통합·합병 등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며, 통합·합병 RPC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자금 지원시 우대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협 RPC의 경우 조합경영과 RPC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내분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법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쌀산업이 시장개방 폭 확대에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가 시급하다. 그 동안 우리쌀의 품질고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쌀의 자급을 위한 물량위주의 생산·유통이 이루어져 왔고, 고급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수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고품질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제도 등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시중유통 브랜드 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품질 브랜드 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벼 종자의 개발·보급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 재배관리 표준화 및 화학비료 사용감축, 산물벼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수확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10년후 쌀산업의 모습

이와 같은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되는 경우 쌀의 생산·유통구조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쌀 생산은 현재의 영세소농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규모가 큰 전업농들이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전업농가의 소득은 규모화와 직접지불제의 확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의 소득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쌀 유통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부수매 중심의 유통구조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PC의 수확기 매입량은 현재의 700만석에서 1,100만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